

롯데케미칼, 양적완화 축소 직격탄

6월 들어 시가총액 22.2% 감소 ... 10대 상장기업 74조원 이상 증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10대그룹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6월 들어 74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와 채벌닷컴에 따르면, 우선주를 포함한 10대그룹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6월24일 종가 기준으로 653조1464억원으로 6월1일 종가 기준 727조2472억원에 비해 10.2% 감소했다. 세계 3위권인 SK그룹 및 LG그룹 시가총액이 증시에서 통째로 증발한 셈이다.

세계 1위인 삼성그룹은 시가총액이 338조6579억원에서 298조9894억원으로 11.7% 감소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도 132조2953억원에서 123조8520억원으로 6.4% 줄었다.

SK그룹 역시 73조4887억원에서 68조4219억원으로 6.9% 감소했고, LG그룹은 77조3828억원에서 66조81억원으로 13.7% 증발했다.

이밖에 롯데 마이너스 10.8%, 포스코 마이너스 9.1%,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10.6%, GS 마이너스 8.0%, 한진 마이너스 15.3%, 한화 마이너스 8.4%로 10대 그룹 모두 시가총액이 급감했다.

10대 그룹 중 시가총액 감소율은 한진그룹이 가장 높고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시가총액이 3조8160억원에서 2조8600억원으로 25.1% 줄어 시가총액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LG생활건강 마이너스 23.1%,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22.2%, SK컴즈 마이너스 21.7%, 롯데칠성 마이너스 21.5%, SKC 마이너스 20.3%로 시가총액이 20% 이상 급감했다.

조사대상 120개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이 증가한 계열사는 11.7%인 14곳에 불과했다.

GS그룹 계열사인 코스모화학이 37.3% 증가했고 현대BNG스틸 5.0%, 포스코ICT 4.0%, 삼성화재 3.6%, 현대글로벌비스 3.3%, GS홈쇼핑 2.8%로 주가가 상승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5>